

강진군, 강진 한정식 전문식당 간담회 가져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도서관에서 지역특화 음식 활성화를 위한 강진 한정식 전문식당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표음식으로써 강진한정식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정식 7개소 영업주들이 참석했다.

맛의 1번지로 알려진 강진군은 친환경농업의 최적지로 청정해역을 끼고 있어 싱싱한 육·해산물 식재료가 풍부해 한정식이 발달했다.

강진을 방문하는 여행객은 맛깔스러운 음식과 웅숭한 대접을 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한정식 한상차림을 꼭 먹고 싶어 한다고 여행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다만, 현대인들의 여행 트렌드가 가족단위, 친구, 연인 등 소규모 인원으로 바뀌면서 4인 한상차림의 한정식은 다소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강진 한정식 취급업소부터 위생등급제

도전을 제안하고 위생등급제 전문 컨설팅업체 연결 및 등급 지정시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대로 된 정통의 맛은 유지하면서 형식은 현대 스타일을 접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보고, 지역특화음식 육성사업 컨설팅을 통해 2인 밥상 제안을 받아 업소별 개선이 필요할 경우 반영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영업주들은 “한정식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대부분의 종사자들은 요양보호사로 전직할 경우가 많아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가장 힘든 점”이라며, 외국인 근로자가 강진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김은숙 식품위생팀장은 “500만 관광객을 모으는 첫 단추는 깔끔하고 맛있는 음식인 만큼, 군은 지역음식점을 집중 관리해 수준 높은 음식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운재 기자



강진군은 최근 강진군도서관에서 지역특화 음식 활성화를 위한 강진한정식 전문식당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대표음식으로써 강진한정식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도약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정식 7개소 영업주들이 참석했다. /강진군 제공

무안군, 하천 정화사업 실시

무안군(군수 김산)은 9월부터 3개월간 청소인력 8명을 투입해 영산강 본류와 무안천, 남창천, 대치천 일대를 대상으로 하천 정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태풍, 집중호우 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수거·처리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은 영산강 본류와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3곳의 지천에 각각 2-3명의 청소인력을 배치해 하천변에 방치돼 있는 부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최대한 선별해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개월간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해 군민들께 쾌적한 환경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주민들께서도 하천에 유입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생활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0년에는 6천톤, 2021년에는 1천49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깨끗한 하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윤규진 기자

영암군, 읍면 순회 확대간부회의 개최

영암군에서 최근 영암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우승희 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9월 중 읍면 순회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10월 및 11월에 개최되는 제47회 영암군민의 날 행사, 2022 월출산국화축제, 2022 마한문화행사에 대한 보고 및 토론, 영암군 혁신과제 읍면보고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행사 개최에 있어 보완 및 개선해야 하는 사항 등을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 및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영암군 혁신과제 읍면 보고회는 공약사항, 국정 및 도정 추진과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 발굴한 24개의 혁신과제를 공유하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의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수정 보완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우승희 군수 취임 이후 간부회의 모습이 사뭇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다. 매주 개최되는 부군수 주재의 간부회의가 군수 주재의 주요 현안 업무에 관한 토론하는 회의로, 매월 셋째 주에 본청에서만 개최되던 확대간부회가 읍면 실정을 더욱 잘 살피고자 읍면에서 개최하는 읍면 순회 확대간부회로 바뀐 것이다.

여기에, 우승희 군수는 간부회의 때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한 군정에 대한 지시사항을 프레젠테이션으로 직접 실과소장에게 설명하며 젊은 생각과 새로운 방식으로 영암을 혁신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 혁신과제 보고회는 변화와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영암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작이다.”라며,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과 협업을 촉진하는 회의 등을 통해 군정 혁신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목포시,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목포시가 경유차량 1만 여대에 대해 2022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간접규제 일환인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에

따른 부담금으로 해당기간 내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해 부과됐다.

간혹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아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환경개선부담금은 후속제로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에도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농협 등에서 납부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ARS(080-270-8880[무료], 270-8880[유료]), 인터넷지로서비스(giro.or.kr), 위택스(wetax.go.kr),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 경과 시에는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 개최

함평군이 내년도 중점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계획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군은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 논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이상의 군수 주재로 ‘2023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군수실에서 실과소별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신규사업 74개를 비롯해 공약·계속사업 등 366건의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새로운 도약 희망찬 함평’이라는 민선 8기의 군정 목표 실현 방향을 담아 주요 공약 및 현안사업 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군은 2023년도가 민선 8기 비전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직원들도 변화와 혁신속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함평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용운 기자

신안 청년마을 축제 큰 호응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신안군의 청년마을 '주섬주섬마을'에서는 최근 특별한 축제를 열어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청년의 날을 맞아 주섬주섬마을에서 직접 기획한 '솔티(Salty) 크리스마스 축제'는 동물과 함께 미리 즐기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폐교인 신안군 팔금중학교에 조성한 우실 동물숲의 희귀 동물 등을 관람하고 축제 마스코트인 '소금이'와 함께 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도시 청년들에게 폐교를 제공해 각종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숙소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협조해 연차적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당초 이틀동안 개최 예정이었던 축제는 뜨거운 반응으로 10월 1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박성태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켓마켓

구례군 로켓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